



간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전된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발전된 것이며, 인간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준 죄된 마음의 결단과 육체적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

또 이어서 가인과 라멕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죄의 발전은 너무나 심각할 정도이다. 이미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표본으로 주신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근본진리를 라멕이 너무나 겁도 없이 의도적으로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로 불리워진 고대의 독재자들은 평민의 딸들인 ‘사람의 딸들’을 수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두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이것이 고금을 막론하고 왕조들에 나타난 수많은 궁전의 시녀들을 갖게 되는 전통으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서 각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의 결과와 영향 아래 있었고, 죄는 더욱 기승을 부려서 6장에서 도무지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도달한 것이었다. 이것은 되물림되는 저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죄, 죄성, 죄의 결과, 죄의 영향이 커져가는 것을 나타낸다. 되물림되는 저주라면 저주의 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3.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저주

창세기 9장에는 위에서 말한 권위자가 아랫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저주하는 동시적 선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일반화를 주장하는 본문이 될 수 없다. 여기서의 저주는 합의 잘못된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다음 세대 전체가 아닌 한 사람인 가나안의 혈통에 주시는 것이

다. 즉 한 사람의 특수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한 사람이 특수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저주의 유전성을 일반화시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4. 아브라함의 죄 = 이삭의 죄

(아내를 누이로 속임)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 را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고, 유사한 일이 이삭에게도 일어난 것을 읽을 때 이것을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가계에 거짓이라 는 저주가 흐르는 것을 증언한다고 생각한다. 또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많은 거짓된 행동은 아브라함 대에서부터 시작된 유전되는 거짓들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반복적인 행동을 그렇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관점에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반화이다. 거짓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거짓이 죄의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거짓이라는 저주가 유전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앞선 세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는 가족들이 그 앞 세대가 짓는 죄를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면은 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지 저주의 유전이라고 볼 수 없다.

5. 제 2계명(출애굽기 20장)의 해석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격려/경고하는 것이 제 2계명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차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천대) 축복하실 것이다. 반대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아